

So Do 구문의 도출에 관한 연구*

김 연 승
(공주대학교)

Yeon-Seung Kim. 2018. No I-to-C Movement in the *So Do* Construc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1, 78-98.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so do* construction is derived. Contrary to most scholars' argument that I-to-C movement applies in the derivation of the *so do* construction, we argue that there is no I-to-C movement in the construction. *So* is a proform derived by means of VP-preposing and *so*-replacement, occupying TopP-Spec. On the contrary, *neither* is a negative focus element occupying FocP-Spec. We propose that the subject-auxiliary inversion shown in both the *so do* construction and the *neither* construction results from a different operation: subject postposing in the former, and I-to-Foc movement in the latter.

Keywords: focalization, I-to-Foc movement, *so*-replacement, subject postposing, topicalization, VP-deletion, VP-preposing

1. 머리말

영어에는 다음과 같은 *so do* 구문이 있다.¹⁾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구문의 도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 (1) a. John can speak French, and so can Mary.
b. Frank adores dogs, and so does his wife.

* 본 논문은 2017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좋은 논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들 드린다.

¹ 본 논문에서 다루는 *so do* 구문은, *do*뿐만 아니라 (1a)처럼 범조동사가 주어의 선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은 *so do* 구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가장 대표적 특징인 주어-조동사 도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느냐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Quirk et al. 1985, Huddleston and Pullum 2002, Toda 2007, Hatakeyama et al. 2010, 김선웅 2011 등)은 이러한 주어-조동사 도치 현상이 I-to-C 이동이라는 핵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어-조동사 도치 현상이 핵이동이 아니라 주어후치(subject postposing)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so do* 구문의 도출과정에서 I-to-C 이동은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so*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so*가 *neither*에 대비되는 긍정극부사(positive polarity adverb)라는 주장이고(Quirk et al. 1985, Culicover 1991, Huddleston and Pullum 2002, Hatakeyama et al. 2010, 김선웅 2011 등), 다른 하나는 전치된 VP를 대체하는 대용형(proform)이라는 주장이다(Toda 2007). 본 논문은 대용형이라는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so do* 구문의 도출과정의 대표적 분석으로 Toda(2007)와 김선웅(2011)의 분석을 살펴본다. 각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절에서 제시할 새로운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 3절에서는 I-to-C 이동의 적용 없이 *so do* 구문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추가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남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본다.

2. 선행 연구

2.1. I-to-C 이동분석: Toda(2007)

Toda(2007)는 *so do* 구문에서 I-to-C 이동을 받아들이지만, 단순히 이 핵이동만으로는 완전한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의 예를 들어 입증한다.

(2)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be Ann.

만약 I-to-C 이동만 일어난 것이라면 *Ann*이 *be*보다 앞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따라서 Toda는 주어후치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so do* 구문은 VP-전치 (VP-preposing), I-to-C 이동, 주어후치 및 *so*-대체(*so*-replacement)가 모두 적용되어 생성된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음과 같은 도출을 겪는다.

- (3) a. [_{IP} Mary [_I can [_{VP} speak French]]]
 b. i. VP-전치
 [_{CP} [_{VP} speak French]_i [_{IP} Mary [_I can t_i]]]
 ii. I-to-C 이동
 [_{CP} [_{VP} speak French]_i [_C can_j [_{IP} Mary [_I t_j t_i]]]]]
 iii. 주어후치
 [_{CP} [_{VP} speak French]_i [_C can_j [_{IP} t_k [_I t_j t_i]] Mary_k]]
 iv. *so*-대체
 So can Mary.

그리고 도치된 VP가 위치하는 자리는 최대투사범주가 위치하는 CP-Spec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문장에서 *did*가 C 자리이므로 *did* 앞에 나타나는 *so*는 CP-Spec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 (4) a. I left and so did Bill.
 b. Did Bill leave?
 c. Bill did not leave.
 d. Bill DID leave.
 e. *Bill did leave.

즉, Toda에 따르면, 조동사 *do*가 (4b)처럼 의문문의 경우에는 C 위치에 나타나고, (4c-e)처럼, 부정어가 있거나 강조될 경우(focused)에만 I 위치에 나타난다. 그런데 (4a)의 *did*는 강조된 경우도 아니고 부정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4a)의 *did*는 C 위치임에 틀림없다고 Toda는 주장한다(Toda 2007: 193 참조).

이러한 Toda의 분석은 여러 의문점들을 내포한다. 첫째, (4a)의 *did*가 C 위치라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는 점이다. (4c)의 부정문처럼 *did*가 I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a)의 경우도 *did*가 I 위치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do*-삽입(*do*-support)은 I와 본동사가 인접하지 않아 I의 자질을 받아줄 동사가 없을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4a)는 VP-전치를 통해 I의 자질과 동사가 인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do*가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겪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 (5) a. I left and so did Bill.
 b. [_{VP} leave]_i [_{IP} Bill I[F] t_i]
 c. [_{VP} leave]_i [_{IP} Bill did t_i] ← *do*-삽입

(5c)에서, Toda의 주장대로, 주어후치와 *so*-대체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도출된다.

- (5) d. so [_{IP} t_j did t_i] Bill_j ← *so*-대체와 주어후치

따라서 *did*의 위치를 C가 아니라 I로 분석하더라도 *so do* 구문을 도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의문점은 전치된 VP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점이다. 과연 Toda(2007)의 주장처럼 CP-Spec으로 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CP-Spec에는 의문사구가 나타나므로, 전치된 VP를 CP-Spec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더 낫은 분석이 될 것이다. *so*가 IP를 선행함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IP보다 앞서면서 최대투사범주가 나타나는 자리는 CP-Spec이므로 전치된 VP가 CP-Spec에 위치한다는 분석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izzi(1997, 2001, 2004)가 주장하는 세분화된 CP 구조(articulated CP Structure)를 받아들이면 보다 가능성이 넓어진다.²⁾

² Rizzi(1997, 2001, 2004)에 의해 제안된 세분화된 CP 구조에 따르면, CP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기능범주로 나뉘어진다.

(i) ForceP > Int(errogative)P > Top(ic)P > Foc(cus)P > WhP > ...

Rizzi의 주장은, 절의 왼쪽 주변(left periphery)이 언어에 따라 다양한 기능범주로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와 같은 세분화된 CP 구조는 의문사구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는 기제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Shlonsky and Soare(2011)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why*와 다른 의문사들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ii) [_{IntP} why [_(TopP) [_(FocP) [_{WhP} when/where [_{FinP} [_{ResP} why [_{VP} ... when/where ...

즉, *why*는 ResP-Spec에 기저생성되었다가 IntP-Spec으로 이동하고, *when*이나 *where* 같은 다른 의문사구들은 VP내에 기저생성되었다가 WhP-Spec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Kim(2017)은 이러한 세분화된 CP 구조를 이용하여 *why*는 why-최소공백화

Rizzi(1997)는 문장의 구조적 층위(layer)를 어휘적 층위, 굴절 층위, 보문소 층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층위는 VP, IP, C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그리고 보문소 층위는 Force, Int(errogative), Foc(us), Top(ic) 등 다양한 기능범주로 세분화된다. 우리가 이러한 세분화된 CP 구조를 받아들이면, VP-전치는 일종의 화제화(topicalization)로 볼 수 있으므로, 전치된 VP의 위치를 TopP-Spec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다음과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6) [_{TopP} so Top [_{IP} t_j did t_i] Bill_j]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주장대로 (4a)에서 *did*의 위치가 C가 아니라 I라면, 전치된 VP의 위치도 굳이 CP-Spec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단지 IP를 선행하는 어떤 기능범주의 지정어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위치가 TopP-Spec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VP-전치가 일반적으로 주어-조동사 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 (7) a. Mary has promised to finish the work, and [finish it] Mary will.
 b. *Mary has promised to finish the work, and [finish it] will Mary.

전치된 VP를 대체한 *so*의 위치는 FocP-Spec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초점 이동은 주어-조동사 도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제화는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어구의 문두로의 이동은 도치를 유발한다.

- (8) a. During the holidays I will write a paper.
 b. *During the holidays will I write a paper.
 (9) a. *On no account I will write a paper.

(why-stripping) 구문에서 항상 ResP-Spec에서 IntP-Spec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³ Rizzi(2007)에 따르면, 이들 담화와 관련된 범주(예를 들어, Wh, Foc, Topic 등)들의 한 가지 특성은 어떤 요소가 작용역 위치에 도달하면 그 위치에서 얼어붙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즉, 보문소 층위 내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각 층위 내에서의 이동은 문제가 되나, 층위를 넘어서는 층위간 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b. On no account will I write a paper.

(8)의 PP 이동은 화제화이지만, (9)의 PP 이동은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화제화와 구분되어야 한다. Haegeman과 Guéron(1999)은 이를 초점화(focalization)라 부르고 부정어구는 FocP-Spec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한다. 즉, (9b)는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 (10) a. [_{IP} I will on no account write a paper]
 b. [_{FocP} on no account_i [_{Foc} will_j] [_{IP} I t_j t_i write a paper]]

초점화의 경우에는 기능범주 Foc의 어떤 강한 자질이 I-to-Foc 이동이라는 핵이동을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초점화와 달리, VP-전치는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치된 VP를 대체한 *so*의 위치는 TopP-Spec이라고 결론짓는다.

세 번째 의문점은 본 논문의 핵심쟁점에 관한 것으로, *so do* 구문의 도출과정에서 과연 I-to-C 이동이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Toda의 분석에서는 주어후치라는 운용이 이용되므로, 굳이 I-to-C 이동이 없어도 주어는 조동사보다 뒤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전치된 VP의 위치를 TopP-Spec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예문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제화는 주어-조동사 도치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I-to-C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VP-전치는 부정어구의 이동이 아니므로 I-to-Foc 이동과 같은 핵이동을 유발하지 않는다.⁴⁾ 따라서 *so do* 구문에서의 VP-전치는 결

⁴ 물론 부정어구만 FocP-Spec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처소/방향의 PP도 FocP-Spec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처소 PP-이동의 가장 큰 특징이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김연승(2014)은 Foc의 강한 자질이 I뿐만 아니라 *walk*과 같은 비대격동사까지도 유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제시한다.

- (i) a. Into the room walked Robin.
 b. [_{IP} I [_{VP} walked Robin into the room carefully]]
 c. [_{IP} Robin_i [_I walked_j] [_{VP} t_j t_i into the room carefully]]
 d. [_{FocP} into the room [_{Foc} walked_j]_I [_{IP} Robin_i I [_{VP} t_j t_i carefully]]]

그리고 다음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가 다른 조동사에 의해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동사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 (ii) a. *Up the hill has been climbing my brother.

코 핵이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so do* 구문의 도출 과정에서 I-to-C 이동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의문점은 무엇이 주어후치를 유발하는가라는 점이다. Toda의 주장대로 *so do* 구문의 생성에 주어후치가 관여한다면, 이동의 유발자가 있어야 한다. 우선 가능성 있는 유발자로는 VP-전치가 있다. 그러나 예문 (7)은 VP-전치가 주어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Hatakeyama et al.(2010)도 다음 예를 들어 VP-전치는 결코 주어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11) a. John wanted to win the race, and win the race he did.
 b. *John wanted to win the race, and win the race did he.

Toda는 주어후치를 임의적인 운용으로 간주한다.

- (12)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be Ann.
 b.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e.

즉, (12a)는 주어후치가 적용된 경우이고, (12b)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모든 이동에는 이동의 동인이 있다는 일반적 가정을 받아들인다면,⁵⁾ 주어후치의 유발자를 찾아야 한다. 더구나 주어 *Ann*은 중량명사구(*heavy NP*)가 아니므로, 이 경우의 주어후치를 중량명사구 이동으로 볼 수도 없다.⁶⁾

- b. *At the head of the table will be sitting the father.
 (Rochemont and Culicover, 1990:96)

⁵ 이동의 동인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동하는 요소가 자신의 어떤 요구조건의 만족을 위해 이기원리에 따라 스스로 이동한다는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범주가 이동의 어떤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어 유인자 역할을 할 경우에만 이동이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Chomsky(2000, 2001, 2004)는 이동의 동인으로 ‘일반화 EPP(*generalized EPP*)’를 제시한다. 즉, 기능범주가 EPP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EPP 특성의 만족을 위해 활성화된(*active*) 요소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 채택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이동에는 반드시 동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⁶ Lasnik(2014)이 지적하듯이, 우향초점이동(*rightward focus movement*)은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는데, 이동되는 요소가 PP이거나 DP인 경우 중량명사구이어야 한다.

- (i) a. *Mary saw yesterday Harry.
 b. Mary saw yesterday her old friend Harry.
 c. Mary saw yesterday Harry Hetherington.
 (ii) Mary spoke yesterday to him.

중량명사구 이동과 같이 주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후치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더욱 뒷받침된다.

- (13) a. In the room Robin slept fitfully.
 b. *In the room slept Robin fitfully.

PP 이동이 적용된 위와 같은 비능격동사 문장의 경우,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없다. 만약 PP가 초점화에 의해 FocP-Spec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Foc의 강한 자질 때문에 동사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비능격동사는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연승(2014)은, 비대격동사와 달리, 비능격동사의 경우에는 Culicover와 Levine(2001)의 분석대로 PP가 TP에 부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⁷⁾

- (14) a. [_{TP} T [_{VP} Robin slept in the room fitfully]]
 b. [_{TP} Robin_i T [_{VP} t_i slept in the room fitfully]]
 c. [_{TP} in the room_j [_{TP} Robin_i T [_{VP} t_i slept t_j fitfully]]]

즉, PP가 FocP-Spec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TP에 부가되므로 기능범주 Foc가 없어 동사의 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능격동사의 경우에도 주어가 중량명사구인 경우에는 동사가 주어를 선행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 (15) In the room slept fitfully the students in the class who had heard about the social psych experiment that we were about to perpetrate.

김연승(2014)은 (15)는 주어가 중량명사구라서 TP-Spec에서 오른쪽 주변으로 우향이동을 겪은 경우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so do* 구문에 주어후치가 적용된다

⁷ 김연승(2014)은 비대격동사의 경우에는 전치된 PP가 FocP-Spec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i) a. Into the room walked Robin.
 b. [_{TP} T [_{VP} walked Robin into the room carefully]]
 c. [_{TP} Robin_i [_T walked_j] [_{VP} t_j t_i into the room carefully]]
 d. [_{FocP} into the room [_{Foc} walked_j]_T [_{TP} Robin_i T [_{VP} t_j t_i carefully]]]

면, 그러한 이동의 동인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치된 VP가 *so*로 대체되는 과정이 주어후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3)의 도출과정은 옳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적용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 (16) a. [_{IP} Mary [_{I'} can [_{VP} speak French]]]
 b. i. VP-전치
 [_{TopP} [_{VP} speak French]_i [_{IP} Mary [_{I'} can t_i]]]
 ii. *so*-대체
 [_{TopP} *so*_i [_{IP} Mary [_{I'} can t_i]]]
 iii. 주어후치
 [_{TopP} *so*_i [_{IP} t_j [_{I'} can t_i]] Mary_j]]

이러한 분석은 도출과정을 단순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진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은 *so*-대체가 왜 주어후치를 유발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정할 뿐이다. 그러나 *so*-대체는 항상 주어후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닌다. 반면에 Toda의 분석에서는 주어후치가 *so*-대체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어후치의 동인을 찾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2. 잔여동사구 이동분석: 김선웅(2011)

김선웅(2011)은 *so do* 구문에서의 *so*는 긍정극부사로서 처음부터 PolP-Spec에 기저생성된다고 주장한다(Culicover1991, Hatakeyama et al. 2010 참조). 그리고 핵이동과 VP-생략 후의 잔여동사구(VP remnant) 이동을 통해 *so do* 구문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⁸⁾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된다.

- (17) a. John must be a fool, and so must be Mary.
 b. [_{PolP} *so* must [_{CP} [_{VP} be [_{VP} ∅]] [_{C'} t'_{must} [_{IP} Mary [t_{must} t_{VP}] ...

⁸⁾ 잔여동사구 이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Baltin(2002) 및 Johnson(2009) 참조.

조동사 *must*는 I-to-C 이동을 거쳐 상위의 핵인 Pol까지 이동하고, *a fool*이 생략된 상태의 잔여동사구인 *be*가 CP-Spec으로 이동하게 되면 (17a)의 두 번째 절과 같은 어순의 도출이 완성된다.⁹⁾

김선웅(2011: 260)은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never*나 *little*과 같은 부정부사가 문두에 오면 주어-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 (18) a. Never have I dreamed about this marriage.
 b. Little has John thought about Mary.

즉, *so*는 긍정극부사이고 *never*나 *little*은 부정극부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PolP-Spec이라는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극부사라는 주장이다.

Quirk, et al.(1985: 882)도 다음 예를 들어 같은 주장을 한다.

- (19) a. You asked him to leave, and so did we.
 b. The corn isn't ripening, and neither are the apples.

즉, *so*는 *neither*와 긍정과 부정 면에서 대조되는 어구로 둘 다 같은 위치를 차지하며 주어-조동사 도치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so do* 구문에 관한 김선웅(2011)의 분석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낳는다. 첫째, *so do* 구문에서 왜 잔여동사구 이동이 꼭 일어나야 하는가? VP-생략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잔여동사구 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예문이 잘 보여준다.

- (20) A: John is a fool.
 B: Yes, he must be.

따라서 잔여동사구 이동의 동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한, 잔여동사구 이동에 근거한 주어와 *be* 동사의 도치 현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잔여동사구의 이동위치가 왜 CP-Spec인가라는 점이다. 일반적

⁹⁾ 반면에 Hatakeyama et al.(2010)은 *must*와 *be*가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의 핵으로 합쳐진 후에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선웅(2011) 참조.

으로 CP-Spec은 의문사구와 같은 명사구가 오는 자리인데 VP가 이동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세분화된 CP 구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능범주의 지정어위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FocP-Spec이나 TopP-Spec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FocP-Spec이 무엇인가에 의해 채워지는 초점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핵인 Foc의 강자질로 인해 핵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FocP-Spec이 잔여동사구의 이동위치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잔여동사구 이동은 원래 동사구의 일부(예를 들어, 목적어)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동시키기 위한 기제라는 점에서 잔여동사구가 TopP-Spec으로 이동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이자 결정적 의문점은 *so*가 부정극부사인 *neither*에 반대되는 긍정극부사라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21)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be Ann.
 b.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e.
- (22) a. *Bill mustn't be a gossip and neither must be Ann.
 b. Bill mustn't be a gossip and neither must Ann be.

즉, 부정어구가 도치된 *neither* 구문은 조동사만의 도치가 일어나지만, *so do* 구문에서는 조동사뿐만 아니라 본동사 *be*의 도치도 가능하다. *so*와 *neither*가 같은 구문의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극부사이고 단지 긍정과 부정의 차이라면, 왜 (21)에서는 잔여동사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22)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을 다음 3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새로운 분석

결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o do* 구문과 *neither* 구문은 전혀 다른 도출과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 (23) 두 문장의 도출과정은 각각 (24), (25)와 같다.

- (23) a. Bill can speak French and so can Mary.
 b. Bill can't speak French and neither can Mary.

- (24) a. VP-전치

[_{TopP} [_{VP} speak French]_i [_{IP} Mary [_{I'} can t_i]]]

- b. so-대체

[_{TopP} so_i [_{IP} Mary [_{I'} can t_i]]]

- c. 주어후치

[_{TopP} so_i [_{IP} t_j [_{I'} can t_i]] Mary_j]

- (25) a. I-to-Foc 이동

[_{FocP} neither can_i [_{IP} Mary [_{I'} t_i [_{VP} speak French]]]]]

- b. VP-생략

[_{FocP} neither can_i [_{IP} Mary [_{I'} t_i [~~_{VP} speak French~~]]]]]

이미 앞 절에서 기술하였듯이 *so do* 구문의 도출은 VP-전치, *so*-대체, 주어후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neither* 구문에서 *neither*의 위치는 FocP-Spec으로 분석한다. *neither*가 이 자리에서 기저생성되는지, VP내에 생성되어 초점화를 통해 이 자리로 이동하는지는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Foc는 I-to-Foc 이동을 유발하므로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한다. 그리고 VP-생략이 적용되면 (23b)가 도출된다.¹⁰⁾ *neither* 구문에서는 주어후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22a)는 비문이고 (22b)가 정문이 되는 이유이다.¹¹⁾

¹⁰⁾ *so do* 구문은 VP-전치를 통해, *neither* 구문은 VP-생략을 통해 도출된다는 우리의 주장은 다음 예문들의 문법성 대조를 통해 뒷받침된다.

(i) ??Bill can speak French and so can Mary speak French.

(ii) Bill can't speak French and neither can Mary speak French.

(i)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_{VP} speak French]가 전치된 후 *so*로 대체되었으므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i)에서 [_{VP} speak French]는 VP-생략이 적용될 경우에는 생략되지만,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¹¹⁾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 예문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i) A: My sister can't drive a car.

B: *So can't she./Neither can she. (Quirk et al. 1985: 882)

neither 구문은 핵이동과 VP-생략을 통해 도출되므로 *Neither can she.*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러나 *so do* 구문은 주어후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후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명사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so do 구문과 *neither* 구문은 전혀 다른 도출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밝혔으므로, 이제 다 같은 *so do* 구문인 다음 예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 (26)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be Ann.
 c.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e.

(26a)는 *be a genius*가 전치된 경우이고, (26b)와 (26c)는 술어인 *a genius*만 전치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so*는 VP를 대체한다기보다 범주에 상관없이 XP를 대체한다고 보아야 한다.

*so*가 동사와는 별개로 술어(형용사구, 명사구 등)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문장들은 잘 보여준다.

- (27) a. Prices at present are reasonably *stable*, and will probably remain **so**.
 b. If he's *a criminal*, it's his parents who have made him **so**.
 c. Brett's work is not yet *consistent in style and quality*, but will no doubt become **so**.
- (28) a. This is *obvious* enough in the case of adults, but even **more so** in the case of children.
 b. Although the poor girl was *exhausted*, she was **less so** than we feared.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 (ii) a. Into the room walked John.
 b. Into the room he walked.
- (iii) a. Into the room to fix the sink came the plumber.
 b. Into the room to fix the sink she came.

그러나 다음 예문이 보여주듯이, 긍정문에서는 주어가 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주어후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 (iv) A: My sister can drive a car.
 B: So can she.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중량명사구인 경우에는 정문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so do* 구문에 주어후치가 적용된다는 우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 (v) A: My sister can't drive a car.
 B: So can't a lot of people, but that doesn't prevent them from trying.

- c. The weather was *hot* in Cairo, but at Luxor it was even **more so**.
- (29) a. They promised that the vessel would be *in good condition* and we found it **so**.
- b. They promised that the vessel would be *in good condition* but we found it **otherwise**. (Quirk et al. 1985: 879–880)

여기에서 *so*는 VP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술어(앞 절의 이탤릭체 부분, 즉, AP, NP, PP)만을 대체하는 것이다.¹²⁾ 따라서 *so do* 구문에서도 *so*가 VP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전치시켜 대체할 수 있다.

이제 (26)의 각 예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be a genius*가 *so*로 대체된 경우이다.

- (30)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e a genius* → *so*)
- b. ... and [IP must [VP Ann [Topic be a genius]]]
- i. 주어상승
[IP Ann_i must [VP t_i be a genius]]
- ii. 화제화
[TopP [be a genius]_j [IP Ann_i must [VP t_i t_j]]]
- iii. *so*-대체
[TopP so_j [IP Ann_i must [VP t_i t_j]]]
- iv. 주어후치
[TopP so_j [IP t_i must [VP t_i t_j] Ann_i]]

(30a)의 기저구조는 (30b)와 같다. 우리는 VP-내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받아들이므로 주어는 VP-Spec에 기저생성되었다가 I의 EPP특성 때문에 IP-Spec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위 예문에서 [Topic]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a genius*가 아니라 *be a genius*이다. 따라서 *be a genius*가 TopP-Spec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so*-대체가 적용된 후 주어후치가 적용되면 (30)과 같은 문장

¹²⁾ 이것은 *so*가 긍정극부사라는 주장(Culicover 1991, Huddleston and Pullum 2002, Hatakeyama et al. 2010 등 참조)보다는 대용형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so do* 구문의 *so*는 앞의 술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so do* 구문은 VP-생략이 아니라 VP-전치와 *so*-대체를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도출된다.

다음은 *a genius*가 *so*로 대체된 경우이다.

(31)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be Ann. (*a genius* → *so*)

b. ... and [_{IP} must [_{VP} Ann be [_{Topic} a genius]]]

i. 주어상승

[_{IP} Ann_i must [_{VP} t_i be a genius]]

ii. 화제화

[_{TopP} [a genius]_j [_{IP} Ann_i must [_{VP} t_i be t_j]]]

iii. *so*-대체

[_{TopP} so_j [_{IP} Ann_i must [_{VP} t_i be t_j]]]

iv. 주어후치

[_{TopP} so_j [_{IP} t_i must [_{VP} t_i be t_j] Ann_i]]

(31a)의 기저구조는 (31b)와 같다. 여기서 [Topic]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a genius*이므로 *a genius*가 TopP-Spec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so*-대체와 주어후치가 적용되면 (31) 문장이 도출된다.

다음은 주어가 *must*와 *be*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so do* 구문에는 주어후치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주어가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32) a. Bill must be a genius and so must Ann be.

b. ... and [_{IP} must [_{VP} Ann be [_{Topic} a genius]]]

i. 주어상승

[_{IP} a genius_i must [_{VP} Ann be t_i]]

ii. 화제화

[_{TopP} a genius_i [_{IP} t_i must [_{VP} Ann be t_i]]]

iii. *so*-대체

[_{TopP} so_i [_{IP} t_i must [_{VP} Ann be t_i]]]

(32a)의 기저구조는 (32b)와 같다. (32)는 EPP특성 때문에 IP-Spec이 채워져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VP-내 주어가 아니라 술어인 *a genius*에 의해 만족된 경우이

다. 어떻게 이러한 이동이 가능한가? 다음 예문들처럼, 명사구가 아닌 다른 XP에 의해 IP-Spec이 채워진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33) A: When are we going to have the next meeting?

B: On Tuesday will be fine.

During the vacation is what we decided.

In March suits me. (Quirk et al. 1985: 658)

(34) a. Slowly is how he does his homework.

b. After four would be the best time for me.

따라서 우리는 [Topic] 자질을 가진 요소는 그 범주에 상관없이 IP-Spec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¹³⁾ 이 가정이 옳다면, VP-내 주어인 *Ann*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남고 오히려 *a genius*가 IP-Spec으로 이동한다.¹⁴⁾ 그리고 *a genius*는 [Topic] 자질의 점검을 위해 TopP-Spec으로 한 번 더 이동한다. 이 경우 *so*-대체는 주어후치를 유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IP-Spec이 흔적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혹은 주어후치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흔적의 이동이므로 어순의 변화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가 문장의 맨 오른쪽이 아닌 중간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31)과 (32)의 차이는 EPP특성 때문에 IP-Spec이 무엇인가에 의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때 VP-Spec을 차지하고 있는 VP-내 주어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가, 아니면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Topic] 자질을 가진 요소가 상승하는

¹³ 한 논평자가 지적하듯이, 이 가정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충분히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증거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Topic] 자질을 가진 요소라 하더라도 그 범주가 V의 투사범주인 경우는 EPP 만족을 위해 IP-Spec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것이 (30)이 (32)와 같은 도출과정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다.

¹⁴ EPP 만족을 위해 *Ann*이 아닌 *a genius*가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보다 가까운 요소를 놔두고 먼 요소를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부성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처소 PP가 도치된 구문들은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 Under the stars is a nice place to sleep.

(ii) Under the table rolled the beer slowly.

물론 이러한 도치된 처소 PP 구문에서 PP가 IP-Spec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Stowell 1981, Bresnan 1994, Collins 1997, Rizzi and Shlonsky 2006, Culicover and Winkler 2008 참조). 우리는 [Topic] 자질을 가진 요소는 비록 멀리 있어도 VP-Spec의 요소를 우선하여 IP-Spec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방법을 택하는가의 차이로 귀결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so do* 구문에서의 *so*는 긍정극부사가 아니고, 일종의 화제화인 XP-전치를 통해 문두에 옮겨진 요소가 *so*-대체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o*-대체는 주어후치를 유발하므로 겹으로 드러나는 주어-조동사 도치 현상은 I-to-C 이동이라는 핵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어후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so do* 구문은 *neither* 구문과는 겹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치상 *so*는 TopP-Spec에, *neither*는 FocP-Spec에 나타난다. 그리고 두 구문 모두에서 나타나는 주어-조동사 도치 현상은 전자의 경우 주어후치를 통해, 후자의 경우 I-to-Foc 이동이라는 핵이동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VP의 음성적 정보가 없어지는 현상은 전자의 경우 VP-전치 및 *so*-대체를 통해, 후자의 경우 VP-생략을 통해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so do* 구문과 *neither* 구문의 차이

	<i>so do</i> 구문	<i>neither</i> 구문
<i>so/neither</i> 의 위치	TopP-Spec	FocP-Spec
주어-조동사 도치현상 유발요인	주어후치	I-to-Foc 이동
VP의 음성적 정보 생략요인	VP-전치/ <i>so</i> -대체	VP-생략
VP의 잔존 여부	불가능	가능
본동사 <i>be</i> 의 주어선행 여부	가능	불가능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구문의 도출상 차이를 통해 (21)-(22)의 문법성 대조를 자연스럽고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so*-대체가 왜 주어후치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Hatakeyama et al.(2010)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자세히 다룬다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36) A: Tom is very nervous.

B: So would you be in his position. (Huddleston and Pullum 2002: 1539)

(37) B: *So would be in his position you.

Hatakeyama et al.(2010)은 Toda(2007)가 주장하는 주어후치의 문제점으로 (37)이 비문이라는 점을 제기한다. 우리 역시 주어후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37)은 우리 분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36)에서 *so*는 *very nervous*만을 대체한 것이고 *you*는 VP-Spec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7)이 비문인 이유는 후치된 주어가 대명사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장은 문법성이 훨씬 좋아진다.

(38) B: ?So would be in his position a lot of people in your class.

이러한 현상은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so do* 구문과 *do so* 구문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다룰 필요도 있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구문의 *do*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9) a. John speaks French, and Mary does so too.

b. John will speak French, and Mary will do so too.

do → 본동사

(40) a. John speaks French, and so does Mary.

b. John will speak French, and so will Mary.

do → 조동사

(41) a. *Mary likes Sam, and Chris does so too. *do* → 본동사

b. Mary likes Sam, and so does Chris. *do* → 조동사

즉, *do so* 구문의 *do*는 본동사이지만, *so do* 구문의 *do*는 조동사이다. 우리는 앞서 *so do* 구문에서는 VP-전치가 일어남으로써 I의 자질들을 받아줄 동사가 없어지고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do*-삽입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41a)의 비문법성에 대해 Toda(2007)는 본동사 *do*의 특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본동사 *do*는 상태동사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지만, 조동사 *do*는 의미상 그런 제약이 없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Stroik(2001: 367 n9)은 다음 예문의 문법성을 들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42) a. Sam expects me to like that book, and Chris expects me to do so too.
 b. To like your parents is often difficult, and but to do so as a teenager can be especially difficult.

위 예문들은 *like*가 상태동사임에도 불구하고 *do so*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웅(Kim, S-W.). 2011. 영어의 *so*-도치구문 소고(A note on the *so*-inversion in English). 《생성문법연구》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1, 255-264.
- 김연승(Kim, Y-S.). 2014. 도치된 처소 PP의 이동위치(On the position of an inverted locative PP). 《언어연구》 (*Studies in Language*) 30, 67-89.
- Baltin, M. 2002. Movement to the higher V is remnan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3, 653-659.
- Bresnan, J. 1994.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72-131.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m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C. 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Culicover, P. W. 1991. Polarity, inversion, and focus in English. *ESCOL* 91, 46-68.
- Culicover, P. W. and R. Levine. 2001. Stylistic inversion in English: A

- reconsider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9, 283–310.
- Culicover, P. W. and S. Winkler. 2008. English focus inversion. *Journal of Linguistics* 44, 625–658.
- Haegeman, L. and J. Guéron.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Malden, Mass.: Blackwell.
- Hatakeyama, Y., K. Honda and K. Tanaka. 2010. The *so*-inversion construction revisited. *The Linguistic Review* 27, 25–36.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K. 2009. Gapping is not (VP-)ellipsis. *Linguistic Inquiry* 40, 289–328.
- Kim, Sun-Woong. 2016. Do it, do so, and VP-ellipsi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 469–491.
- Kim, Yeon-Seung. 2017. Why-stripping and the articulated CP structur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 235–254.
- Lasnik, H. 2014. Multiple sluicing in English? *Syntax* 17, 1–20.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A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281–337. Dordrecht: Kluwer.
- Rizzi, L. 2001. On the position "int(errogative)" in the left periphery of the clause. In G. Cinque and G. Salvi, eds., *Current Studies in Italian Syntax: Essays Offered to Lorenzo Renzi*, 267–296. Amsterdam: Elsevier.
- Rizzi, L. 2004. Locality and left peripher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223–25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zzi, L. 2007. On some properties of criterial freezing. *CISCL Working Papers*, 145–158.
- Rizzi, L. and U. Shlonsky. 2006. Satisfying the subject criterion by a non subject: English locative inversion and heavy NP shift. In M. Frascarelli, ed., *Phases of Interpretation*, 341–361. Berlin: Mouton de Gruyter.
- Shlonsky, U. and G. Soare. 2011. Where's 'why'? *Linguistic Inquiry* 42, 651–669.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Stroik, T. 2001. On the light verb hypothesis. *Linguistic Inquiry* 32, 362–369.
- Toda, T. 2007. *So*-inversion revisited. *Linguistic Inquiry* 38, 188–195.

예시 언어 (Examples in): 영어 (English)
적용 가능 언어 (Applicable Languages): 영어 (English)
적용 가능 수준 (Applicable Level): 모든 수준 (All)

김연승
공주대학교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 850-8362
E-mail: yskim@kongju.ac.kr

논문 접수(Received): February 09, 2018
논문 수정(Revised): March 10, 2018
게재 결정(Accepted): March 19, 2018